

불자 세상보기



휘광 스님
미국 뉴욕불광선원 주지

미국포교, 합리성에 현실참여를 더해라

동양의 불교는 최근 수십년 사이 서구인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의회(The World Parliament of Religions)는 불교가 미국에 처음 알려진 계기가 됐다. 헨리 소로우는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인 <법화경>의 영문과 작업에 큰 공헌을 했다. 불교의 사상과 가르침을 그의 삶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자본주의 극으로 치달았던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경종을 울린 바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츠 박사의 선불교에 대한 영어포교 역시 1960년대 미국 젊은이들의 비트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초감트루파 린포체는 오늘날 미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 현지인 불자들의 스승으로 일컬어진다. 물론 한국의 송산 스님 역시 현대 세계 불교계의 큰스님으로서 달라이라마, 티벳, 마하 고사난다와 함께 세계 4대 스님으로 꼽히는 분이다.

20세기 후반부터는 동남아 상좌부불교와 한국 티베트 베트남 중국 일본 인도 등의 수행불교가 미국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

태의 불교가 미국에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단일화된 모습이 아닌 다양한 불교를 선보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불자들에게 계파와 문화를 초월하여 불법이 결국엔 하나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전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됐음을 느낄 수 있다.

필자가 주지로 소임하고 있는 미국 뉴욕 불광선원에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선시간이 있다. 매주 월~수요일 저녁 7시경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사찰 인근의 거주민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한국에서 17년간 수행한 미국인 출가자 대성 스님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매월 20여명 현지인들이 참석하며 간화선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석회원들이 불교에 입문한 경위를 살펴보면 일본 동남아 베트남 인도 중국 티베트 등 불교와 접한 그 최초 인연이 다양한 것이 확인된다.

저녁 7시 참선을 시작하면 20~30명 현지인들이 조용히 법당에 들어와 정진을 한다. 월~수요일 매일 참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 직장이나 개인사정에 따라

1주일에 한 두 번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정진 후에는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그들 모두는 화두공안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난 문제점에 집중하거나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또는 자기의 전공 분야(정신분석, 심리치료 등)의 향상이나 개인의 영성개발을 위해 명상을 한다고 한다. 다수의 미국불교인들은 불교를 종교적 측면보다는 자아성찰에 중점을 둔 수행명상불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미국불자들은 불교의 가르침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됐다고 말한다. 때문에 재가수행 위주의 미국 불교가 이러한 합리성으로 무장하고 현실참여의 빈도를 높인다면 미국불교의 앞날은 밝다.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 공존함으로써 새로운 제3의 정신문화 탄생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재가불자 수행은 새로운 정신문화탄생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어떠한 이념도 일반화 될 수 없는 미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역사의 이러한 수레바퀴의 흐름을 어느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社說

정부는 대북 원칙부터 똑바로

10월 13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주본)이 금강산 신계사에서 낙성 4주년을 기념한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날 남북 불자들은 대결·대립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소통으로 만들기 위한 염원이 뜨거웠다고 한다.

통일부는 민주본이 방북을 하루 앞둔 12일, 돌연 방북을 불허했다가 다시 허용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그러는 동안 조계종은 수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 북측에 행사 취소까지 통보해야 했다.

남북은 반세기 넘게 갈라져 남남으로 지내왔다. 서로 총칼을 겨누며 죽고 죽이며 피 흘린 상흔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 같

기도 하다. 이것을 만회할 묘법이 조계종이 대북 교류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공존과 상생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교류·협력 등을 제한했던 정부는 9월 3일 조계종 방북단의 평양행을 승인하며 “순수한 종교적 목적의 방북이라는 점과 올해가 민족유년 기념대대장경 판각 1000년이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방북 승인을 불허하려 했는지 그 이유부터 밝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해야 한다. 정부가 하는 일은 공명정대하고 명명백백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선 말기, 민초들이 조정에 등 돌렸던 것은 내정의 실패만이 아니라 대외정책의 실패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진흥원의 진취적인 행보를 기대한다

10월 14일, 제13대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에 김규철 이사가 추대됐다. 민병천 전 이사장이 타계한지 열흘만의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흥원의 새 이사장 선출은 민 전 이사장의 49세가 끝난 다음에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탈상까지는 고인에 대한 예의·배려에서라도 이사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둘 것이라는 생각들이 여지없이 틀렸다. 그러나 불교계는 이번 인선에서 ‘상중’이라는 경우를 따지기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규철 신임 이사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사결정이 터져 두뇌는 작고 몸집만 거대한 공명으로 묘사되던 진흥원의 발 빠른 움직임을 통해 앞으로 있을 긍정적인 변화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

진흥원은 그동안 불교계에서 진흥원의 지원 한번 받지 않은 종단·단체가 없을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진흥원이 금번 이사회에서 김규철 신임 이사장을 추대하며 ‘불교의 현대화’와 ‘사회에 공헌하는 불교’를 실현해 나가기로 다짐 마음을 모았다고 한다. 특히 이사장 직무대행이던 진흥원 원로 배명인 이사는 자신을 향한 임원진들의 추대 의사를 끝까지 고사하며 진흥원의 세대교체 및 변화와 개혁을 주문했다고 한다. 배명인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진흥원 이사들의 용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김규철 새 이사장이 이끄는 진흥원이 설립취지에 120% 부응하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어주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사부대중 칼럼



은정희
前 서울교대 교수

완간이 장한 일만은 아니다

어릴 적 꿈인 ‘개달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던 것일까. 우리 한국불교사상의 특징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평가되는 원효를 만나 그의 저술을 판독하는 일은 개달은 일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됐고, 그래서 원효에 매달린 지 20여년 만에 <대승기신론소별기(大乘起信論疏別記)>의 역주서를 내었다. 또 10년 간격으로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이장의(二章義)> 등의 역주서가 차례로 나왔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은 보다 훌륭한 작업을 위해 원문 이해에 필요한 한문·논리학·유식·구사·중관 등의 공부도 병행했기 때문이다. 또 팀을 만들어 몇 차례(보통 3~4회)나 절차타마를 하느라 시일이 더 소요됐다.

40여년 전 한국의 불교사상가들을 섭렵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들에 대한 정확한 번역서 내지 역주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원효(元曉)를, 의상(義湘)을, 지눌(知訥)을, 기화(己和)를, 휴정(休靜)을 제대로 알고 이들의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저술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역주서가 선행하지 않고는 안 된다

를 빼져리게 느끼게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불교사상사 전반을 개괄하고, 번역하려는 저술의 언어(한문 경전인 경우) 즉,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10년 이상 공부해야 하며, 번역 대상서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유식이면 유식, 구사면 구사, 중관이면 중관 그 밖의 논리적인 사고방식 등을 정확하게 학습해야 한다.

불경의 번역은 하루아침에 딱딱 일본의 <국역일체경(國譯一切經)>이나 재번역하는 수준이어서는 훌륭한 번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은 주석이 거의 없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나한 주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십수년 전 두어 차례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완간에 대한 축하 및 반성의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역경원의 번역서를 재검토해야 하며, 그러려면 일종의 도제양성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문·철학·논리학·구사·유식·화엄 등의 과목을 학습시키고, 나아가 어떤 하나의 저술을 역주하기 위해 팀을 만들어 철저히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그러나 마이동풍으로 끝나 버린 것 같았다. 그 뒤 불교신문 등에 수차례 이런 내용

을 역설했으나, 역시 무반응이었다. 오역이라도 완간된 것만으로 장한 일을 한 것이라며, 거기에 안주하는 태도들이었다. 불교 전적의 훌륭한 번역을 위한 나의 비원은 이렇게 무참히 묵살되어 버렸다.

국립고전국역원에서는 국역사 양성을 위해 국역원 자체뿐 아니라 국역사 석·박사 과정을 성균관대와 제휴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등 기타 중요 문집의 초역에만도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를 30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국역원 자체뿐 아니라 지방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국역사업을 재추하고 있다. 우리 불교 전적들의 보다 철저한 역주를 위해 우리 불교계에도 도제양성까지 염두에 둔 또 하나의 독립된 고전국역원의 성립을 제창을 바라 마지않는다.

이는 대학과 종단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쳐 국가의 지원까지 끌어내는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앞으로 사는 날까지는 일단 원효에 매달려 보겠지만, 우리 불교사상가들에 대한 보다 빠른, 보다 많은 역주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양성을 포함한 종단 내외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정확한 번역서, 역주서 부족하고 동국역경원 주석은 대부분 부실 불교 전적 온전히 번역되려면 종단과 국가의 바른 지원 절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일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이시울 현물닷컴 실시간 뉴스 현물뉴스 불교포탈 부디피아 소평을 현물닷컴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공리규정 및 그 실현 요강을 준수한다

종도모집
[사]생활불교조계종

(사)생활불교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해명을 바르게 이어갈 종도분들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법일 다정

사무총장	우경 유영준
기획실장	법양자 이해수
운영위원장	구당 김해섭
재무국장	명운 정경자
감찰위원장	도선 이중환
포교실장	충현사 광미숙
상벌위원장	법륜 임재승
기획국장	김종혁

충분산 : 충남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태화산 약사사
전화 : (041)841-9339
010-5453-7285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전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당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함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당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격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통증·관절통증·허리통증·어깨·목통증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관절이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만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 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팔꿈치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가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관절만 팔꿈치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ml x 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영업사원 모집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금강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능협 015-01-415953 최성욱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답니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악균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낍니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곽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사용하신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5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능협 015-01-415953 최성욱